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
: Ran Lahav의 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心理治療學科

文 載 雄

2019 年 6 月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
: Ran Lahav의 이론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徐 明 錫

文 載 雄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 年 6 月

문재웅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年 6月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to Education for Wisdom
: Based on Ran Lahav's Theory

Jae-Ung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19 . 6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oung-Seok Seo, Prof. of Psychotherapy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3
II. 지혜교육과 철학상담의 선이해	6
1. 지혜개념과 교육의 접점	6
2. 철학상담의 개념	9
III. ‘라하브 이론’으로 본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	13
1. 자기한계 알기: 소격화의 단계	13
2. 당대 철학자들과의 대화: 설명과 이해의 단계	15
3. 자기-탈바꿈: 전유의 단계	17
I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5

국 문 초 록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 : Ran Lahav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 재 응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서 명 석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단순 주입식 학습을 근간으로 한다. 학생들은 경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경쟁에 의해 교육시스템으로 선택 또는 배제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기초한 근대교육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철학적 사유란 근원적이고 실존적 존재에 대한 깊은 사고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식 중심의 우리 교육과정에 지혜라는 철학의 본질적 요소를 가미해 이를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지식의 우물은 있는데 지혜의 우물은 없다. 그러니 지식과 지혜가 소통하도록 지혜의 우물을 파놓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상쇄시키는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지식이 아닌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철학이 교육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돕고, 더 나아가 자기-탈바꿈에 이른다.

연구자는 먼저 지혜개념과 교육의 접점을 살펴본다. 또한 철학상담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조화하여 담론(텍스트)을 만든다. 이 텍스트를 리콥르(P. Ricoeur) 해석학 방법론의 각 단계를 거치게 한다. 그 후 라하브(R. Lahav)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혜교

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에 접근할 것이다.

어리석음의 세계는 플라톤의 동굴이다. 동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경계(한계)를 말한다. 그 경계는 단단하고, 좁은 사고이며 편협한 도그마이다. 동굴 밖을 나가는 것은 지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관을 획득하고 자기-탈바꿈을 성취하는 것이다. 철학상담의 과정은 동굴을 좀 더 완전하며 자유롭고 깊은 삶으로 극복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인간의 삶이란 한 가지 절대적 로고스나 하나의 목소리로 설명될 수 없다. 각 개인의 삶 자체가 풍부하며 조화로운 하모니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지혜교육의 통과의례를 거쳐 자기-탈바꿈을 이룬 자만이 만들 수 있다. 즉 내적 차원의 소리(공명의 소리)로 말이다.

※ 주요어: 지혜, 지혜교육, 철학상담, 철학, 해석

I. 서론

공명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열림의 태도이다.

—라하브(편상범, 2017: 273)

1. 연구의 목적

교육의 존재 목적은, ‘인지·정의·행동을 균형있게 성장·발달시키는 것’이라는 전인교육과 맥락을 같이한다(Brown, Harder, Orlich, Miller & Trevisan, 2018: 80). 교육에서 정책은 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정책은 필연적으로 방향이라는 가늠자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정책 지향점은 교육제도를 독려해 나가는 힘의 근원이면서 그 힘의 방향에 반하는 부작용도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협화음이라 해도 틀림이 없다(서명석, 2010: 243).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단순주입식 학습을 체계로 하고 있다. 입시 위주인 지식의 암기 숙달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점의 바로미터를 나타낸다. 학생들은 경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시스템에 의해 선택 또는 배제된다. 당대의 교육 현실이 앞서 설명한 전인교육과 어긋나는 반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과학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로 구축된 근대교육에 근원적 의문을 제기한다. 근대교육은 인지·정의·행동 세 영역에 들어있는 지식·기능·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Brown et al., 2018: 184).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서 지식과 지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닌 ‘앎’(épistémè)이었다. 지식이 곧 지혜였으며 지혜가 지식이었다. 이것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변질되었다. 근대에 교육자들은 로고스를 절대시했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근대교육에서는 인간의 뿌리인 실존의 존재가 경시되었다. 명확히 정의한다면 근대에는 인간실존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적 배려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서명석, 2001: 146). 근원적 실존인 존재에 관한 깊은 사고는 철학적 사유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어로 철학은 philo-sophia이다. philo는 사랑을 말하며 sophia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philo-sophy는 지혜-사랑이 된다. 한자로는 애-지(愛智)이며 이것이 곧 ‘철학’이다(서명석, 2018b: 26).

우리교육은 지식의 우물은 있는데 지혜의 우물은 없다. 그러니 지식과 지혜가 소통하도록 지혜의 우물을 파 놓는 청사진이 필요하다(서명석, 2013a: 83). 연구자는 이것이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상쇄시키는 대안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당대 지식중심 주류 교육과정에 지혜라는 철학의 본질적 요소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곡된 지식의 개념을 회복시키고 지혜와 지식이 함께 교육여정의 동반자로서 동행하는 것이다.

아헨바흐(G. B. Achenbach)는 1981년 최초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철학실천을 시작하였고, 철학상담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철학상담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그의 의견은 20세기 초 철학상담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학술 논의의 좌장 위치에 있다(이영의, 2009: 388).

철학상담은 철학을 모(母) 학문으로 하는 응용철학이다. 심리학에서 나온 심리상담이 내담자의 장애에 초점을 둔다면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어리석음에 포커스를 둔다. 다시 말해, 어둠에서 밝음, 거짓 세계에서 진리 세계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나가게 해주는 과정이 철학상담이라 할 수 있다(서명석, 2018b: 66). 내담자가 편협하고 고착된 사고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신을 낳도록 하는 대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산파법과 상황을 같이한다(서명석, 2019: 2). 철학실천의 영어명은 ‘philosophical practice’, 독일어로는 ‘Philosophische Praxis’이다. 철학상담의 창시자 아헨바흐가 이 말을 사용한 이래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거의 다수에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공식적 용어가 되었다.

미국철학실천가협회 매리노프는 철학상담에 대한 중요점을 시사했는데, 철학실천의 하위개념이고 철학실천 영역의 하나로 못 박았다(이진남, 2009: 349). 라하브는 진보된 철학실천 형식이 철학친교라 밝혔으며 철학상담보다도 철학적이고 철학토론 모임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응용될 수 있다고 했다(편상범, 2017: 279). 미시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그는 철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소재의 하이파 대학교 교육학과에 철학실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철학실천을 가르

치고 있다. 그는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소재한 남부 감리교 대학교 철학과 심리 철학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저술활동을 하다가 1992년 사설 철학상담소를 열었다(Lahav & Tillmanns, 1995 / 정재원, 2013: 231).

라하브는 『철학친교』에서 공명을 강조했다. 재즈로 비유하자면, 함께함에서 나 자신의 곡만을 연주하는 솔로 연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재즈 밴드의 연주자들이고, 서로 공명하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간다고 하였다. 같은 의미로 철학친교에서 ‘우리’개념은 모든 동료와 공동으로 기여하여 만드는 모듬-이해를 창조한다. 이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를 진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음악은 각자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철학친교에서 나의 태도는 깊은 차원으로 변화한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의 밖을 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존재하는’ 내적 태도에 있으며, 타자들과 모든 텍스트 및 관념들을 공명한다. 라하브는 이것을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열림의 태도라고 얘기했다(편상범, 2017: 272). 이것은 하모니이며 어떤 면으로는 철학의 틀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상담이 치료를 원조하고, 치료는 상담을 지지한다.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 돕는 것이며 상담과 치료의 합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서명석, 2018b: 61).

연구자는 지식이 아닌,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철학은 교육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돕고, 나아가 자기-탈바꿈에 이른다(Gregory & Laverty, 2009: 160). 그러기 위해서 연구자는 철학과 철학 상담의 연계성 및 개념을 정리하고 철학상담과 치료에 대한 객관적 텍스트를 설계한다. 이어 리코르 해석학의 틀을 통하여 라하브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를 밝힌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리코르 텍스트 해석학이다(서명석, 2013b: 43). 해석은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Ricoeur, 1976: 95). 해석학은 이해의 문제를 본격적인 탐구주제로 삼고, 이것을 밀도 높은 철학적 논의과정을 통해 밝히

는 학문이다(이재호, 2010: 172). 텍스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리콥르는 서면으로 고정된 담론이라고 하였다(Ricoeur, 2000 / 박병수·남기영 옮김, 2002: 160; 서명석, 2013: 49b).¹⁾ 해석은 이해 중 하나의 파생적 형태였다(Ricoeur, 2000 / 박병수·남기영 옮김, 2002: 159). ‘이해’는 참다운 지식을 알기 위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지적 모험의 과정’이다(이재호, 2010: 9). 다시 말하면 텍스트와 해석자의 끊임없는 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론적 해석학의 처지에서 보면, 이해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당사자의 눈이나 자세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화’(내면화)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자의 마음 바깥 개념이나 의미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 그 자신의 것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이재호, 2010: 43). 연구자는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를 리콥르 해석학 단계로 이해의 담론을 펼쳐 나가하고자 한다. 이해의 획득과정은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의 마음과 분리되지 않게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진정한 텍스트의 의미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당사자 자신의 ‘이야기’로 바뀔 때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이재호, 2010: 51). 해석학을 통해 리콥르는 인간의 자기 이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하고자 했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해석이요, 그 해석을 주제로 삼아 연구하는 학문이 해석학이다(양명수, 2017: 26). 리콥르는 텍스트 해석과정을 설명, 이해, 전유라는 3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설명으로 텍스트의 내부 본질을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로 더욱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삶과 관련한 텍스트의 외부적 요인들과 소통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유로 텍스트를 스스로 자기화하는 것이다(Ghasemi et al., 2011: 1623 / 박상현, 2014: 40). 이런 리콥르 해석학 구조의 세 가지 과정에 앞서 전제해야 할 필수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소격화이다. 소격화는 모든 시-공간적 거리를 문화적인 낯섦으로 바꾸어 버리는 타자성과 모든 이해를 자기-이해로 확장 시키는 자신성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원리이며 ‘거리두기’이다(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옮김, 1977: 83).

이렇게 네 가지(소격화→설명→이해→전유) 핵심 요소가 리콥르 해석학의 바탕을 이루는 단계이다. 소격화는 결코 양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낯섦을 이겨 내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 관심 그리고 노력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물이다

1) 위의 인용문 () 안에 있는 ‘/’에서 ‘/’의 좌측은 원전을 ‘/’의 우측은 번역본을 뜻한다. 이하 모두 같다.

(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옮김, 1977: 83).

설명과 이해라고 하는 용어는 서로 반하는 두 진영의 상징이다. 설명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비 차별성, 즉 그 둘의 인식론적 계속성의 주장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해라는 용어는 인문과학의 환원 불가능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집을 선언한다(Ricoeur, 2000 / 박병수·남기영 옮김, 2002: 193). 이해 없는 설명을 고수하는 분석주의자에게 텍스트는 엄격히 내부적인 작용만 하는 일종의 자동장치로 인식된다. 이해는 독자의 영혼과 저자의 영혼 사이에 상호 소통을 만드는 것, 즉 얼굴을 마주 보고하는 대화와 비슷한 일종의 영적인 교섭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Ricoeur, 2000 / 박병수·남기영 옮김, 2002: 199). 설명에 의한 이해는 가능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 된다.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실현된 것이 구조 분석이다. 설명은 당위적으로 이해단계에서 완성으로 도달한다. 분석활동은 단순한 이해에서 설명을 통해 정보가 담긴 이해로 확장되는 하나의 해석학적 호(hermeneutical arc) 위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다(Ricoeur, 2000 / 박병수·남기영, 2002: 202).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것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하여 주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1977: 189). 이것이 전유이다.

연구자는 먼저 지혜개념과 교육의 접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철학상담의 개념을 밝혀 구조화하여 담론(텍스트)을 만든다. 이 텍스트를 방법론의 각 단계(소격화 → 설명과 이해 → 전유)를 거치게 한다. 그 후 라하브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에 접근할 것이다.

라하브는 변혁적 철학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상상했던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받았다. 그는 앞서 설명한 철학자들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세계에 대해 경직되고 피상적인 태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 일상의 태도가 한계(경계)를 형성하는 삶의 제한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하브 이론의 목표는 내담자 자신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사례 연구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기-탈바꿈에 이르게 하는 상담 프로세스이다(Cohen & Zinaich, 2013: 83).

II. 지혜교육과 철학상담의 선이해

철학상담은 지혜에 초점을 둔다.

—호세 바리엔토스-라스토로호(Knox & Friis, 2013: 23 / 서명석, 2018a: 551)

1. 지혜개념과 교육의 접점

지혜(wisdom)는 보다(to see) 알다(to know)라는 뜻을 가진 인도-유럽 어족의 단어(wede)에서 왔다(Holiday & Chandier, 1986). 모든 언어권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다. 지혜는 다양한 문화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덕목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고대부터 문서로 남겨지거나 구전된 것이 아주 많다. 지혜는 또한 상담자에게서 내담자가 보고 싶어 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현대 심리치료사들은 이 주제를 다루기 어려워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한 정의조차도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Germer & Siegel, 2012 / 서광스님·김나연, 2014: 40).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라는 주제를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 논점이 드러난다. 첫째, 플라톤은 네 가지 ‘기본 덕목’ 중 첫째로 지혜를 꼽았다. 나머지 셋은 용기, 절제, 정의로 이 네 가지 기본 덕목을 지닌 자는 가장 성숙하고 모범적인 인간이다. 지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둘째, 지혜는 인간을 신(神)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신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과 제약에서 멀어질 수 있다(Curnow, 2015 / 장연우, 2018: 186).

서양의 사상가들은 지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성의 중요성과 신(神)을 아는 것, 그리고 실천의 결합을 강조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식의 습득과 그것을 세상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지적 능력을 포함한다. 동양에서 지혜에 관한 전통은 이와 다른 느낌이다. 동양에서는 우리의 인지와 직관, 정서, 대인관계에 관한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혜가 가진 변화의 힘을 강조한다(Germer & Siegel, 2012 / 서광스님·김나연, 2014: 44).

소시오는 지혜를 합리적이고 실용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현실의 근본적 이해

라고 정의하였다. 각 개인의 실제 정황과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반성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 통찰력이라는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Soccio, 2015: 567). 한편으로 지혜는 사람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다. 지혜는 인간 존재의 가장 선량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지적 풍요의 즐거움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해 준다. 지혜는 인간 본성에 그 원리를 두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그 예절의 본보기가 되며 모든 입장과 환경에서의 탁월한 처세술을 지도하기도 한다(김중천, 1998: 127).

또한 지혜는 지식, 경험, 이해, 상식과 통찰력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동정심, 윤리 및 자선 등의 미덕과 같은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지혜는 삶과 행동에 관한 문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다. 수단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건전성, 건전한 감각이며 어리석음에 대한 반대로 정의한다. 이렇게 지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었고 제안되었다(<http://en.wikipedia.org/wiki/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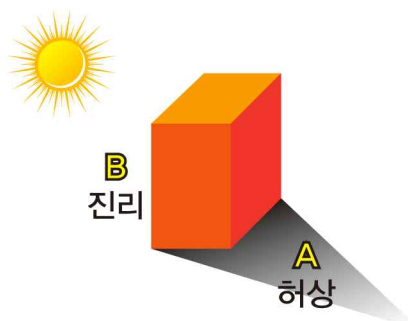
최근 지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심리학 분야에서 나왔다(Curnow, 2015 / 장연우, 2018: 278). 현대의 지혜연구는 지혜의 정의만큼이나 그 측정법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발전하고 있다. 사회과학이 먼저 지혜연구에 관심을 보였으며 지금은 자연과학자들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지혜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다(Curnow, 2015 / 장연우, 2018: 262).

예부터 철학자들은 지혜에 초점을 맞춰 피교육자가 자신의 복지를 경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요구했다(Gregory & Laverty, 2009: 156).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순위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 존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서명석, 2002: 41). 이것이 바로 교육이 지니고 있는 목적의 전제라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시대의 삶, 즉 실존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통찰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것이 지혜이다. 인격의 완성을 위해 항해하는 실습선, 교육 호(號)에 나침반을 장착시킨 것이 지혜교육이며 인격생성의 방법론이다. 특히 학교 공동체라는 교육 현장은 학생 개개인의 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아동과 치유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가치, 정서, 태도, 행동 등 총체적 측면에서 학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박형빈, 2017: 33).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성취 지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치열한 사회 환경과 입시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맞닥

뜨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문제나 신경증적 불안을 해소할 대안은 마땅치 않다(김명진, 2013: 113). 이렇듯 우리 교육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쉽게 그 아픔을 바로 자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병이 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도는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비(非)생명체이기 때문이다(서명석, 2013a: 69).

지혜는 절대적 로고스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을 찾는 여행의 과정이다. 그 여정은 자신이 만든 ‘경계’(어리석음)를 허물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지혜로움)을 키우는 것이다. 지(智)-치(痴)관계의 또 다른 비유를 상담자는 [그림 II-1]로 내담자에게 교육할 수 있다. 어리석음은 A영역에 머물 때이고, 지혜로움은 인간이 B영역으로 나갈 때이다. A의 인간은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있어 어리석고, B의 인간은 허상을 깨닫고 햇빛 찬란한 진리세계로 탈출하여 지혜롭다. 내담자는 비유를 통한 진리와 허상을 깨닫고 자기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그림 II-1] 진리·허상의 비유(서명석, 2018a: 554).

A: 어리석음의 영역

B: 지혜로움의 영역

진리·허상의 비유는 라하브가 언급한 ‘플라톤의 동굴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새로운 세계관을 획득하고 자기-탈바꿈을 성취하는 것이다(Lahav, 2016: 4). A영역에서 B영역으로 이동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가는 과정이며 지혜-사랑(philo-sophia)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교육이란 교육현장에서 ‘철학함’이라 할 수 있다. 상담현장에서 철학적 접근법의 중심을 이루는 원리를 대략 말한다면 일상적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내담자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양식은 세계, 삶, 자신, 그리고

도덕 등에 관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철학적 성찰, 논의와 분석을 포함한다(Lahav & Tillmanns, 1995 / 정재원, 2013: 6). 철학실천은 지혜교육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접근을 구성한다(Gregory & Laverty, 2009: 164).

2. 철학상담의 개념

지금은 이성의 성찰을 넘어 감정의 성찰로서 철학상담을 요구하는 시대이다(신문재, 2017: 409). 철학상담이라는 용어는 미국, 캐나다, 독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철학실천 전체를 대표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상담에 국한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이진남, 2009: 334). 철학상담은 전통적인 철학과는 관련 없는 신생분야라기 보다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지속하여온 철학의 한 흐름이다(이철우, 2017: 124). 철학상담은 철학이 실생활과 괴리되어 관념적 이론화가 되고 국가에 안착하여 제도화됨을 비판하며 시작된 철학실천의 범주 중 하나이다. 즉 철학적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화는 고대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적 철학방법론이었으며 특히 문답으로 진행되는 대화는 ‘본질’적인 것에 닿게 하는 특징이 있다(김명진, 2013: 113).

아헨바흐의 철학상담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견해는 주로 심리치료와 대비를 통하여 제시된다(이영의, 2009: 389). 심리치료는 상담과정에서 심리학적 이론을 기초로 내담자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상담과 심리치료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담학을 심리학의 모방으로 보는 편견은 상담이 곧 심리치료이며 심리치료의 기반은 심리학이라는 언어인식에서 오는 잘못된 이해 덕분이다. 상담은 각 개인의 갖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심리치료는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철학상담은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방법의 한 분야로 심리학적 상담과 어깨를 견주게 된다(이운형, 2005: 187). 철학상담사는 내담자가 지닌 사유하는 능력을 격려해 주거나 통찰하도록 전문적 원조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는 일차적인 목표 외에 내담자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돕는 이차적인 활동을 한다(하윤서, 2018: 291).

철학을 모(母) 학문으로 하는 철학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다. 철학상담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며 살펴보면, 학생(내담자)의 어리석음(痴)을 교사(상담자)가 지혜로움(智)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문적 서비스 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내담자)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남을 체험할 수 있고, 교사(상담자)는 학생(내담자)이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서명석, 2018a: 557). 철학상담이란 교사(상담자)와 학생(내담자)의 협력적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협업의 결과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대화를 통하여 A영역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다.

- A영역 → B영역
- ◎ 어리석음 → 지혜로움
- ◎ 무지 → 깨우침
- ◎ 어두움 → 밝음
- ◎ 거짓 → 진리

위와 같은 표현이 철학상담이 지향하는 대화의 방향성이다(서명석, 2018b: 73). 철학상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삶의 본질적 의문을 품고 있는 내담자를 교육하여 스스로 문제들을 감소시키게 해 주는 일이다(Raabe, 1976 / 김수배, 2010: 27). 철학하는 것, 즉 철학실천으로의 과제로 내담자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철학상담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 내담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신문래, 2018: 302).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대화로 진행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의 연구가 실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된 제반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한 뒤 구체적 방법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철학상담은 행위적 개념이며 주체, 시기, 장소, 대상, 방법, 목적의 여섯 가지 연관적 개념을 가진다. 철학상담을 하는 주체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상담자이며 시기와 장소는 이들이 상담을 위해 마련된 현장에서 대면할 때이다. 대상은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이고 방법은 철학적으로 돕는 것이며,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정석현, 2014: 305).

철학상담에서 인간은 인격적이며 생명성을 띠는 존재임을 전제한다(양선진, 2017: 267). 심리학 영역이 철학에서 독립,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철학상담 작업은 인간의 감성과 감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 채 이성적 측면에서만 소급되어 시도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때론 환호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간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 육체와 정신, 현실세계와 영적세계의 동떨어짐은 존재하기 힘들다(정갑임, 2011: 35).

철학상담은 기존 정신분석학적 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요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었던 많은 정신적 문제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철학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솔직히 말하기’다. 철학상담은 상담자가 소통 없이 진단 및 처방하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기’나 ‘진실하게 말하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두 번째는 ‘공감적 듣기’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분이나 서사 등에 공감적 태도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객관성을 잃고 지나치게 몰입하면 원조자의 역할은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철학상담의 몇 가지 기법들을 도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크라테스의 보편타당한 정의를 통해 일반 상식과 통념을 깨는 방법으로서 내담자가 일상에서 획득한 갈등이나 고통을 치유시킬 수 있다. 둘째, 논박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산파법을 통해 내담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담자가 본인 입장을 직접 제시하여 내담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삼가야 한다(장영란, 2011: 204).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관련한 주요 논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상담은 ‘철학의 하위분야인가 상담의 하위분야인가?’하는 논쟁이다. 두 번째 철학상담은 ‘교육인가 교육이 아닌가?’이며 끝으로 철학상담은 ‘치료인가 치료가 아닌가?’하는 것이다. 처음 논점과 관련해서는 철학상담을 철학실천의 하위분야로 보는 입장으로 굳혀지고 있다. 교육과 치료 관련 논점은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철

학상담과 철학교육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도 있고 철학상담이 철학교육이 되어서는 상담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물론 성공적인 철학상담은 철학교육에 효과가 있고 성공적인 철학교육은 철학상담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철학상담은 치료이므로 치료기법을 방법론적으로 의식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료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치료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구분된다(박은미, 2016: 72).

철학실천은 곧 ‘철학하기’이다. 따라서 철학상담도 ‘철학하기’와 같다. 철학상담은 전문적으로 철학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내담자 자신이 ‘철학하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대화의 과정이다. 철학상담에서 상담자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목적은 일반적 심리상담, 정신상담의 결과인 현상적인 관찰과 답변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신성열, 2016: 187). 내담자의 행동과 정서적 패턴에 관심 있는 심리상담자와는 달리, 철학상담전문가는 내담자의 숨겨진 심리적 원인을 찾는데 관심이 없다. 철학은 영감에 관한 것이지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철학상담전문가는 주로 내담자의 세계관에 관심을 갖는다(Cohen & Zinaich, 2013: 93).

현재 철학상담전문가라는 직업이 존재하며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들 또한 존재하지만 아직 표준화된 훈련 프로그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치열한 사회에서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만큼 철학상담에 대한 요청은 커질 것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역사 탓에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철학상담이 자아정체성을 성찰하는 ‘철학하기’이고 철학하기는 철학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게 됐을 때 철학상담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임윤정, 2014: 407).

Ⅲ. ‘라하브 이론’으로 본 지혜교육을 위한 철학상담의 의의

무엇보다 더 큰 것은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라하브(Lahav, 2016: 4)

1. 자기한계 알기: 소격화의 단계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소격화이다(Ghasemi et al., 2011: 1623-1629 / 서명석, 2013: 49). 즉 텍스트를 해석자와 ‘거리’두게 함으로써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상담가인 철학자가 학계라는 울타리를 넘어 본질적인 실제 삶의 맥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철학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한다. 또한 철학상담은 삶의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직면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담자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고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를 찾도록 독려한다(노성숙, 2009: 3).

철학실천으로서 철학상담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그만큼 철학상담의 이론과 방법 정립은 오늘날 철학상담이 철학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 거쳐야 할 시급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아헨바흐는 해석학이 철학상담에 유효한 방법론의 근거가 됨을 주창한다. 철학상담에서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상담의 대화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둘째, 대화 자체를 봤을 때 내담자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문제 삼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해석학적 지평에서 수행되어야 할 해석 과제라는 저변에 있다. 이때 텍스트 해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다른 이해 지평의 마주침을 이야기한다. 삶의 전체 맥락 안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철학상담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해 자체에 대한 해석학적 통찰 없이 철학상담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내담자의 근원적 치유를 바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박병준, 2015: 221).

철학상담은 전통적인 심리상담과 정신치료에 대한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대안은 철학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성찰하는데 머무는 것 뿐만 아니라 철학의 실용성이라는 철학 본질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박준영, 2008: 43). 철학상담은 성찰력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주는 철학적인 대화라 할 수 있다. 내담자가 성찰력을 높여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철학상담은 비판적 사고교육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유효한 철학상담이 되게 하려면 형식은 집단교육과 개별상담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박은미, 2010: 413).

라하브는 90년대 초 태동기였던 철학실천 운동에 참여했고 이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철학적 여정을 시작했는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항상 이 일에 보람과 충만함을 느꼈다. 라하브는 철학이 우리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영감을 받았고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Lahav, 2016: viii). 그의 이론 중 실천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판적 사고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요지는 철학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며 주장의 형성, 논리적 타당성과 오류의 탐지, 숨겨진 가정의 분석, 노출 같은 다양한 사고 도구나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도구는 상담자들이 내담자 개인 문제와 행동, 신념 및 감정을 분석하도록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런 종류의 철학상담은 추론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Cohen & Zinaich, 2013: 83).

철학상담으로 떠나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 주변의 한계, 즉 삶의 경계를 인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경계를 넘는 탐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계는 플라톤의 동굴이다. 먼저 동굴 안을 조사하고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동굴을 스스로 걸어 나가 세상에 설 수 있다는 말과 같다(Lahav, 2016: 213). 심리상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향을 직접 이해하게 해주고 철학상담은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케 하여 마음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철학상담은 비논리 작동영역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리가 제대로 작동되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를 인식하게 한다는 강점을 지닌다. 내담자의 판단력 재고를 자생적으로 한다는 점이 심리상담과 분별되는 특징이다(박은미, 2013: 126).

2. 당대 철학자들과의 대화: 설명과 이해의 단계

리콰르의 해석학은 언어 해석이면서 본문 해석이요, 텍스트 해석이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철학이며 상징철학이기도 하다(양명수, 2017: 28). 리콰르는 해석의 필수요소를 설명과 이해로 보았다(Thiselton, 2009: 229). 설명은 텍스트의 내적 변별성을 분별하는 작업이고 이해는 텍스트와 해석자 간의 대화 과정이다. 철학상담이 추구하는 대화의 방향성은 [그림Ⅲ-1]처럼 지혜교육의 본질을 구조화한다.



[그림Ⅲ-1] 지혜교육 렌즈로 본 철학상담 구조도(서명석, 2018a: 558).

[그림Ⅲ-1]에서 교사(상담자)는 세로축(정신영역) 및 어리석음에 위치한 학생(내담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원조자의 역할을 한다.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혜로움 영역에 온전히 닿게 하는 여정이 철학상담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혜를 교육하고, 내담자는 상담자의 커리큘럼 과정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협업은 둘 사이의 조화로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이 상담이 된다. 지혜는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는 안목, 곧 통찰력이다. 이와 같은 지혜교육을 통해 교사(상담자)는 학생(내담자)에게 지혜를 전파하고, 학생(내담자)은 상담의 결과로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러한 철학상담을 가르침과 배움의 두 관점으로 독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혜를 전파하는 것은 일종의 가르침, 지혜를 얻는 것은 일종의 배움이다. 이

러한 가르침과 배움을 선불교의 전통에서 줄탁동시라고 불렀고 철학상담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 한다(서명석, 2018a: 558).

라하브는 철학의 역사 속에서 지혜에 관한 많은 보물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카뮈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혁의 실천영역인 철학상담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Lahav, 2016: 213).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자동적 사고에 의해 우리 스스로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Cohen & Zinaich, 2013: 16). 카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뿐이라 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삶에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다(Lahav, 2016: 167).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와 열망에 대해 매우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같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더 완전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Cohen & Zinaich, 2013: 87).

철학은 본래 지혜사랑을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다. 이런 철학이 상담과 만나면 철학상담의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이때 철학상담은 교사인 상담자와 학생인 내담자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대치 구조에서 대화를 통해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육의 내용물에 속하지 않는 지혜담론이라는 세계를 만든다. 이런 방식의 철학상담에 대한 진단은 21세기 교육의 내용체계를 새로 스케치하는 데 또 다른 교육적 고민을 하게 하는 계기를 줄 것이다(서명석, 2018a: 551). 철학상담은 궁극적으로 교사(상담자)와 학생(내담자)을 철학자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철학자란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학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사랑하는-사람(philo-soph-er)이라 할 것이다. 교사(상담자)와 학생(내담자) 모두 철학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철학상담의 궁극적 지향점이다(서명석, 2018a: 560).

3. 자기-탈바꿈: 전유의 단계

해석학에서 이해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삶이다. 언어의 의미를 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이해의 대상에 이미 자기가 속해 있다(양명수, 2017: 52). 전유로서의 해석은 다리의 마지막 교각이자 다리 아치의 끝부분을 삶의 대지에 정박시켜 주는 것이다(Ricoeur, 1976 / 김윤성·조현범, 1977: 83). 다시 말하면 해석자가 텍스트의 현상학적 이해를 통해 해석의 자기화를 이루는 것과 같다. 라하브는 위기에 빠진 철학이 학문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철학이 희소분야로 머물지 않음과 동시에 시장 구조가 요구하는 바를 외면하지 않고 순수한 철학과 분화되어 실천적 철학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철학의 비실천성이 철학을 위기에 빠뜨린 요인임을 고려해 본다면 철학실천이나 철학상담 같은 철학의 실천적 활동은 철학을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하브는 자신이 편집하고 제1장을 쓴 『Essays on Philosophical Counseling』에서 철학상담을 ‘세계관 해석’이라는 원리로 설명한 바 있다. 라하브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 행동, 열망과 기대 등 일상적 삶의 다양한 부분들은 자신과 세계에 관한 특정한 의견의 표현이며 철학상담은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패러다임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철학적 활동이다.

라하브는 여러 다양한 철학상담 수행들을 패러다임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묶고 있으며 이 개념을 통해 심리상담과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피력하고 있다(편상범, 2017: 264). 해석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해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지평융합을 선행으로 한다. 가다머나 리콰르 같은 현대 해석학자들 역시 각자 얘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텍스트에서 실존 문제를 말하고 있다(박상현, 2014: 29). 그런데 해석학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는다. 다시 말해 해석학은 끊임없이 실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를 따지면 가볍게 이해된다.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는 현실 혹은 현장을 떠나서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반성택, 2008: 65; 박상현, 2014: 30). 그것이 바로 해석학이 가진 실존성이다. 다시 말하면 해석학은 현재의 삶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고 삶 역시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해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학은 ‘세

상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주된 과제로 하는 분야인 인문학 전체를 위한 지평이 되기도 한다(Palmer, 1969 / 이한우, 2011: 35; 박상현, 2014: 30). 라하브는 철학상담 여행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의 경계(동굴)를 각자의 내적 깊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재의 충만함으로 걸어 나와 '초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해석 했다. 자기-탈바꿈의 과정으로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위험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Lahav, 2016: 113).

IV. 결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차용고 바라사(Curnow, 2015 / 장연우, 2018: 303)

소시오는 인간이 지식이라는 권능에 취해 스스로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파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벗어날 구원의 길이 지혜이다(Soccio, 2015: 512).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학생은 입학 전까지 지식 중심 교육만을 받아 왔기에 대학생활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로 및 인간관계로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필요한 것이 지혜교육이며 지식교육과 손잡고 이루어져야 할 전인교육의 한 영역이다(김광률, 2009: 22). 즉 지혜교육은 학생 스스로 지혜추구로서의 철학실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Gregory & Laverty, 2009: 167).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채로 오로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동굴 밖에 있는 무언가가 투영된 것이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동굴을 나와 햇빛 찬란한 세계로 들어간 자들뿐이다. 동굴 안에서는 진짜로 여겨졌던 것들이 밖에서 보면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Curnow, 2015 / 장연우, 2018: 9). 어리석음의 세계는 플라톤의 동굴이다. 동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경계(한계)를 말한다. 그 경계는 단단하게 굳어진 좁은 사고, 즉 편협한 도그마이다. 그러므로 동굴 밖을 나가는 것은 지혜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관을 획득하고 자기-탈바꿈을 성취하는 것이다(Lahav, 2016: 212).

보벨은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을 일종의 ‘탈바꿈’으로 생각했다. 보벨에 따르면 지혜로운 이는 인간으로서 완벽해진 자이며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사실상 ‘지상의 신’과 다름없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지식이지만 지식에는 외면적 지식과 내면적 지식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바깥세상에 대한 외면적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지식도 함께 탐구한다(Curnow, 2015

/ 장연우, 2018: 213).

또 다른 시각으로 ‘플라톤의 동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사슬에 묶이지 않은 사람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구출해 빛으로 인도하여 진실을 직접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굴의 삶에 이미 익숙해진 대부분의 동굴 속 인간들은 자유로워지고 빛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 망설일 것이라는 점이다. 너무 급하게 강제로 외부의 빛에 노출된 경우 심지어 눈이 멀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철학상담자는 아직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내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내담자가 자신이 얼마나 더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Deurzen, 2012 / 한재희, 2017: 19).

인간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철학’의 해결책들은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변혁적 실천이다. 정보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라는 것이다(Gregory & Laverty, 2009: 158). 철학상담의 목표는 자기-탈바꿈이다. 철학상담의 과정은 학생(내담자)의 좁고 고착된 한계(플라톤의 동굴)를 교사(상담자)가 좀 더 완전하며 자유롭고 깊은 삶(동굴 밖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극복하여 ‘변화’하는 지혜교육 과정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자기-탈바꿈은 한두 달 상담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상담은 보다 충실한 삶을 향한 여정의 한순간으로 간주하여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끝없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인간의 삶이란 한 가지 절대적 로고스나 하나의 목소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삶 자체가 풍부하며 조화롭게 가야 한다(Cohen & Zinaich, 2013: 16). 이것은 지혜교육의 통과의례를 거쳐 자기-탈바꿈을 이룬 자만이 만들 수 있다. 즉 내적 차원의 소리이며 ‘공명의 소리’이다.

참고문헌

- 김광률(2008). 오늘의 대학생을 위한 지혜교육. **대학과 선교**, 17, 143-168.
- 김명진(2013). 철학상담을 통한 도덕·윤리교육 연구. **윤리교육연구**, 30, 113-136.
- 김천성(1998). 잠언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지혜교육. **관광식음료경영연구**, 9(1), 117-129.
- 노성숙(2009). 철학상담과 여성주의상담. **여성학논집**, 1, 3-39.
- 박상현(2014). 수업 담론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의 필요성: 가다머·리퀴르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1), 29-51.
- 박은미(2010). 철학상담의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 그 적용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3), 413-451.
- 박은미(2013). 철학실천으로서의 철학상담: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차이와 연관하여. **시대와 철학**, 65, 126-159.
- 박은미(2016). 철학 정체성 관련 논문 연구동향. **시대와 철학**, 27(4), 71-113.
- 박병준(2015). 철학상담과 해석학: 철학상담을 위한 해석학의 적용의 문제, **현대유럽철학연구**, 38, 221-249.
- 박준영(2008). 철학 상담의 개념. **교육사상연구**, 22(4), 43-63.
- 박형빈(2017). 윤리상담(Ethis Consultation)의 역할과 적용방안: 수용전념치료(ACT)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5, 33-67.
- 서명석(2001). 가르침과 배움의 동양적 태제: 禪問答. **초등교육학연구**, 8(1), 135-148.
- 서명석(2002). 교육이 대상으로서 인간: 존재에 관한 초월적 입론. **教育學研究**, 40(5), 41-58.
- 서명석(2005). 근대: 종교-교육, 단절과 접속이라는 정체와 소통의 사이 연결. **종교교육학연구**, 21, 89-108.
- 서명석(2006). 선(禪과) 선문답(禪問答)이 교실 상담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유. **교육철학**, 37, 155-173.
- 서명석(2010). 한국교육에 대한 하나의 정책 제안: 불교적 지혜를 통한 선적 심성정화법. **한국교육**, 38(4), 239-259.

- 서명석(2013a). 내면적 치유로서의 불교 명상법의 교육적 활용. **상담과지도**, 48, 69-85.
- 서명석(2013b). 동몽선습 오류 텍스트의 현대적 독법. **인격교육**, 7(3), 43-61.
- 서명석(2018a). 철학상담의 교육세계. **교육문화연구**, 24(5), 551-563.
- 서명석(2018b). **철학상담&철학치료 철학café**. 용인: 책인숲.
- 서명석(2019). 철학적 산파법의 교육 세계: 소크라테스의 스승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1-14.
- 신문래(2018).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클의 실존분석적 로고테라피와 철학상담. **신학과 실천**, 61, 301-329.
- 신문래(2017). 막스 셸러의 공감이론에 기초한 기독교상담을 위한 철학상담. **신학과 실천**, 56, 409-442.
- 신성열(2016). 哲學相談을 위한 『莊子』적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64, 187-212.
- 양명수(2017). 폴 리콰르의 『해석의 갈등』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양선진(2017). 지성중심의 사고를 넘어선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왕양명과 베르그손 사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5, 267-290.
- 이영의(2009).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 아헨바흐의 견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53, 387-408.
- 이운형(2010). 상담철학이란 무엇인가: 상담철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접근. **시민인문학**, 19, 160-190.
- 이재호(2010). **리콰르와 현대 도덕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진남(2009).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연구: 용어 정리와 체계 설정을 위한 제안. **범한철학**, 52, 331-364.
- 이철우(2017). 철학상담 방법론에 대한 고찰: 철학상담 방법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44, 121-156.
- 임운정(2014). 철학상담, 왜 철학하기인가? **동서철학연구**, 71, 407-438.
- 장영란(2011). 철학 상담과 철학적 대화법-플라톤의 대화편을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존재론 연구**, 25, 203-234.
- 정갑임(2011). 왕양명의 良知와 철학상담. **철학논집**, 26, 35-58.
- 정석현(2014). 실천적인 철학상담을 위한 연구. **哲學研究**, 130, 305-335.
- 편상범(2017). Ran Lahav. Handbook of Philosophical companionships. **철학 실천**

- 과 상담, 7, 263-282.
- 하운서(2018). 묵자(墨子)의 겸애사상(兼愛思想)에 기반한 철학상담의 의의. **인문사회과학연구**, 3, 291-314.
- 한재희·남지연(2017). 실존주의상담의 철학적 가치관이 상담자의 자기인식 및 상담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1, 47-66.
- 홍경자(2009). 몸철학과 여성주의 철학상담. **한국여성철학**, 12, 19-116.
- Brown, A. H., Harder, R. J., Orlich, D. C., Miller, D. E., & Trevisan, M. S. (2018). *Teaching strategies: A guide to effective instruction*(11th ed.). Boston, USA: Cengage Learning.
- Cohen, E. D., & Zinaich, S. (2013). *Philosoph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Curnow, T. (2015). *Wisdom: A history*. London, CT, UK: Reaktion Books. / 장연우 옮김(2018). **지혜의 역사**. 서울: 한문화.
- Deurzen, E. v. (2012). *Existential counseling and psychoterapy in practice*(3rd ed.). London: SAGE. / 한재희 옮김(2017).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 Germer, C. K., & Siegel, R. D. (2012). *Wisdom and compassion in psychotherapy: Deepening mindfulness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Guilford Publications, Inc. / 서광스님·김나연 옮김(2014).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서울: 학지사.
- Gregory, M., & Laverty, M. (2009). *Education for wisdom*. In A. Kenkmann (Ed.), *Teaching philosophy* (pp. 155-173). New York NY: Continuum.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Switzerland: Karger.
- Lahav, R. (2016). *Stepping out of Plato's Cave*(2nd ed.). Vermont, USA: Loyev Books.
- Lahav, R., & Tillmanns, M. d. V. (1995). *Essays on philosophical counseling*. Lanham, Maryland U.S.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정재원 옮김(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 Padin, R. (2013). *Defining philosophical counseling* In E. D. Cohen & S. Zinaich

- (Eds.), *Philosoph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p. 16-33).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Raabe, P. B. (1976).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Westport, CT, USA: Praeger. / 김수배 옮김(2010).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coeur, P. (1969).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essais d'herméneutique*. Paris, France: Éditions du Seuil. / 양명수·김정호 옮김(2001). *해석의 갈등*. 서울: 아카넷.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CU press.
- Ricoeur, P. (1976).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Christian Univ. Press. / 김윤성·조현범 옮김(1977). *해석이론*. 서울: 서광사.
- Ricoeur, P. (2000). *Du texte à l'action: essais d'herméneutique II*. Paris, France: Éditions du Seuil. / 박병수·남기영 옮김(2002). *텍스트와 행동으로*. 서울: 아카넷.
- Soccio, D. J. (2015). *Archetypes of wisdom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Boston: Cengage Learning.
- Thiselton, A. C. (2009).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Eerdmans.
- <https://en.wikipedia.org/wiki/wisdom>에서 2018년 10월 10일 검색(검색어: wisdom)

A B S T R A C T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for Education of Wisdom : Based on Ran Lahav's Theory

Jae-Ung Moon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Ph. D.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system is based on rote learning of knowledge. Students take competition as fate, and are chosen or excluded from the education system by competition. This phenomenon is enough to rais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modern education based on scientific rationalism and functionalism. On the other hand, philosophical reasons are deep thoughts about the underlying and existential existence.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knowledge-oriented our curriculum by add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wisdom.

Our education has a well of knowledge but no well of wisdom. Therefore, we need a blueprint to dig a well of wisdom so that knowledge and wisdom can communicate.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offsett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system. Researchers want to rethink

the importance and valu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education for wisdom, not knowledge. Philosophy helps to transform education into wisdom, and goes further to self-transformation.

The researcher first looks at the concept of wisdom and the interface of education. Also, the concept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s explained and structured to form a discourse. Let this text go through each step of the P. Ricoeur's Interpretation Methodology. It will then approach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education for wisdom, focusing on Lahav's theory.

The world of folly is a cave in Plato. Caves refer to the boundaries (limits) of our daily lives. The boundary is hard, narrow thinking and narrow dogma. To go out of the cave is to go out into the world of wisdom. In other words, acquiring a new worldview and achieving self-transformation.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consultation is geared toward overcoming caves with a more complete, free and deep life. Because human life is something that cannot be explained by one absolute logos or by one voice. Everyone's life becomes a rich and balanced harmony. This can only be made by those who have mastered self-transformation through a rite of passage education for wisdom. That is internal level sound (sound of resonance).

※ Keywords: wisdom, education for wisdom, philosophical counseling, philosophy, interpretation